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총력 대응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 통한 신속지원·무료법률상담 운영 “피해자에 실질적 도움 방안 모색·전세사기 예방에도 총력”



순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

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시 현장 접수창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

야 한다. 피해 신청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을 위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 피해지원 ‘전문가 무료법률상담’ 운영

전세사기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전문가(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상담방법은 비대면상담(전화·서면)과 대면상담이 있으며, 대면(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사전예약(1899-8272) 후 매주 1회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은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www.jeonnam.go.kr)에 접속해 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 ‘안심계약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

시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해 전·월세 계약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확인 ▲전세계약핵심체크리스트 설명 ▲법률상담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등이다.

상담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061-749-5870)이 가능하며, 대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전화상담은 수시로 상담창구를 통해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계획

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상담소 운영 요청을 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장택 건축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고흥우체국,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신속한 지원 기대

고흥군은 지난 15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우체국(국장 박동원)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참석한 집배원에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고흥군이 위기 징후 가구에 복지정부가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우편을 배달하면서 실거주 여부 및 생활실태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군에 다시 전달하고, 군은 조사를 통해 해당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에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오는 3월부터 위기가구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등기 우편물을 발송하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 어느 누구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 지역 실정에 밝은 집배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둔다면 복지 공백이 없는 든든하고 살기 좋은 고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채본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 홍보 열기 ‘후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철, 이하 범시민준비위)의 섬박람회 홍보활동 열기가 뜨겁다.

범시민준비위는 설 명절 연휴 활동에 이어 가족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유동인구가 많은 쌍봉사거리와 이순신광장에서 섬박람회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김영 단장을 필두로 한 여수우도품물굿보존회의 신명나는 우도굿 한마당 공연으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50여명의 범시민준비위 위원들은 섬박람회 개최 기간과 장소 등을 적

극 홍보했다. 특히 이날 한 시민은 홍보 봉사를 자처, 전세버스에 섬박람회 홍보현수막을 걸고 원도심을 질주해 시민들에게 섬박람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안규철 위원장은 “지난 설 연휴에는 귀성객을 타깃으로 한 활동이라며, 이번 활동은 우리 시민들에게 섬박람회를 적극 홍보해 시민 주도 봄 조성을 위함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채본부

보성군, 14억여 원 투입...우기 전 사방사업 완료 목표

보성군은 산림자원 가치를 증진하고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총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2023년부터 사전설계를 시작으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를 우기 전 완료해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사방사업은 토양침식이 발생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의 산림재해 예방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계류보전사업은 계곡의 종단기울기를 완화

해 계곡물의 속도를 줄여주고 바닥 침식을 막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기존 사방시설에 대해 외관 점검(64개소), 정밀 점검(4개소), 안전진단(2개소)을 실시하고 균열, 누수 등 특이 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사방시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기 전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